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⑦

다시 '회향'이란 말을 풀어보자. 청량소에서 "회(廻)란 돌린다. 굴린다"의 뜻이요 향(向)이란 '나아가다, 향한다'의 뜻이니, 넓게는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베푼다(廻自向他) 2. 작은 것을 많은 데로 향하게 한다(廻少向多) 3. 자신의 수행을 남의 수행으로 향하게 한다(廻自因行 向他因行) 4. 중생의 수행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한다(廻因向果) 5. 열등함을 출중하게 한다(廻劣向勝) 6.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향한다(廻比向讚) 7. 현상적인 것을 이치적인 것으로 향하게 한다(廻事向理) 8. 차별문을 원융문으로 수행하게 한다(廻差別行 向圓融行) 9.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향하게 한다(廻世向出世) 10. 도리에만 머

하여 크게 인자한 데 머물러 보살의 행을 닦게 하며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여 부처님들의 중성(중성)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대로 보시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중간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길로 부처님께 회향하느니라."

"마음은 모든 업을 본받지 않고 업 지어 과 받는데 물리지 않고 보리 성품 인연으로 생김을 알아 법계에 들어가서 어기지 않네 / 지나간 법 허망하게 취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지도 아니하니 삼(三)세가 공한 줄을 통달하였네."

여기서 소개된 두번째 계승은 <대해서장>의 담루주밀장(담樓樓密樓)에 소개된 바 있다. "문을 닫아걸고 벽관하는 가풍을 있는

성불보다 더 어려운 첫 발심

모든 생각 비워 삼세가 공함을 통달했네

물던 이치적인 수행을 현상적으로 성취로 향하게 한다(廻理理事 事行 向理所成事)는 등이다.

화엄에서 회향의 의미는 심지 수행에 앞서서 행하는 삼현보살(심주 심행 심회향위의 수행자)의 공덕 쌓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6번째 수순견고 일체선근회향(隨順堅固一切善根廻向)에서 60종의 보시공덕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그 때 보살이 육주(六主)에게 말하기를 내가 몸을 버려서 저의 목숨을 대신하려 하노니, 내가 만일 저 사람이 사형 받을 것을 보고도 생명을 버려서 대신 받지 않으니, 왜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가 보리심을 발한 연고니라."

온갖 것으로 보시하는 공덕에 자신의 모든 재물, 왕위 등 모든 소유를, 심지어는 신체와 장기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에 대해 결론내린 장황을 보자. '불법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大畏)로 모든 중생을 구호

다 하니 이는 참으로 마음공부하는 좋은 약이다. 마음을 쉬고 나서는 지나간 일에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에도 살피고 또 살피서 한 칼에 두 조각을 내어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면 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여기서 대해선사(1089~1163)는 단지 조주무자(趙州無字) 화두만을 생각할 일이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출연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 이 한 생각마저 깨뜨려 버리면 단박에 삼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가르치신다.

불교에서 보살의 회향이란 처음 발심할 때부터 함께 하여야 정각을 이룬 후에 중생에게 널리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월반경>에서는, '첫 발심과 구경성불이 다르지 않건만 이 가운데 첫 발심이 더욱 어려우니, 자기도 못하고도 남을 제도해라'고 한 것이라. 앞의 10가지 회향의 정신에 비추어 이해하도록 하자.

■ 불교신문사 편집국 연구원



그림 · 문병성

인연 모이면 물질 흠어지면 공간

불교와 과학 <36>

바람 바람
바람은 서 있는 놈이 없으면
바람도 아니야

이 시는 우리 시대 생명사상의 스승이셨던 故 무위당(無爲堂) 장일순 선생의 화폭 안에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와 함께 쓰여진 글귀이다. 그 짧은 시구 안에서 우리는 광대한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고뇌를 엿보게 된다.

인생은 고뇌라고 한다. 그러나 고뇌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 고뇌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겨우 고뇌를 깨쳐 가는 가운데 비로소 삶의 흔적을 알게 된다. 그 사람 앞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강물이 아예 없었다면 사랑하는 사람

과학

물체 부피만큼 공간 생겨

불교

공간·물질의 근본은 하나

를 찾아 급류의 저 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의 절실함을 엿볼 수 있다. 해와 달의 지고 뜬이 없다면, 늪과 태어난이 없다면 시간의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거나 변화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구름과 천둥, 번개가 없다면 하늘이 무슨 필요가 있을지, 하늘이 무엇일까라는 호기심도 없었을 것이다. 달빛과 별빛이 있어서 밤이 있고, 어둠과 무서움이 있어서, 어렸을 적 그런 밤이 무서워 근방 까막으며 도깨비 귀신 이야기에 이부자리 소동도 일어났다.

모진 바람 앞에 서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뿔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기에 비로소 바람의 존재가 다가온다. 세상살이 또한 번뇌와 갈등이 아예 없었다면 그것을 깨닫거나 깨우칠 일도 없게 된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사 속에서 "아 그거였구나"하는 느낌이 올 때는 이미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가 많았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생활 속의 작은 깨우침도 없었을 것이다. 지나가는 젊은 여인을 보고 겨우 흘려 놓은 색정과 숨겨진 하장은 물욕이 불끈 튀어나오려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과 좌절을 할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깨달음과 깨우침으로 가려는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원래 깨달음을 가진 이보다 깨달음의 길을 나서야겠다는 서원의 깨달음을 갖는 이가 더 아름다운 구도자일 수 있다. 비록 완전한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달음

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물체들이 없다면 공간의 존재와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연과학에서 공간은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즉 철학용어로는 연장성(延長性)으로 설명가능하다. 자연히 연장성을 지니는 물체가 없다면 공간도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공간을 물체의 경험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순수 직관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직관성은 물체가 없으면 그 의미도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공간과 물체의 상관성이 매우 중요되고 있다. 그 상관성의 기본은 물체가 있을 경우에만 중력을 낳는 공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과학이나 서구철학에서 공간과 물체는 여전히 서로 다른 두 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람은 그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람일 수 있다. 공간은 물체가 있어서 공간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람과 서 있는 사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일이 먼저이다. 마찬가지로 공간과 물체가 둘이 아니다. 물체는 극미의 물질 원천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원리는 바로 인

연의 끈이다. 서로 다른 인연에 따라 동일한 물질 원천들이 다른 물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윤회의 사슬이 이어지니, 각각의 물체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하나이다. 질적으로 동일한 물질 원천들이 모이면 각각의 물체가 되고 흠어지면 공간이 될 뿐이다. 그래서 공간과 물체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기 언덕 위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그 소나무는 소나무이지만 그 소나무를 물질 원천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뉜 것을 다시 불성(佛性)의 인연을 통해서 법신(法身)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면 그 소나무는 곧 법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이미 기신론(起信論)에서 설파되었고 반야의 진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논리를 떠나서 이러한 변화의 깨달음 혹은 무상의 깨달음이야말로 바로 일상사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말한 색정과 물욕 역시 무조건 버리고자만 한다면 계속 따라 붙을 뿐이니, 고뇌 없는 깨우침은 없으며, 시행착오 없는 구도는 없을 것이다. 석존의 깨달음을 거울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한낱 시름에 지나지 않는 욕정에 빠짐과 벗어남이 하나라는 세간의 인연 구조를 알 수 있다면 삶의 깨우침으로 가는 길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최종덕/상지대 교수 jchoi@chak.sangji.ac.kr

성당 불교작품 놓고 종교-미술계 입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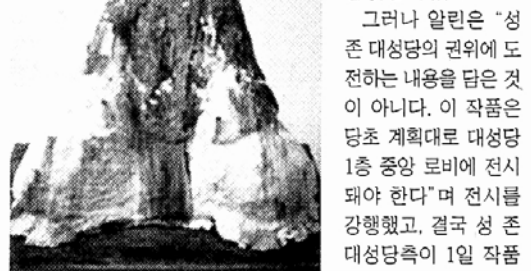
지구촌 불교 / 美 성당 전시회 논란

미국 뉴욕에서 6월 17일 시작된 성(聖) 존(John) 대성당의 전시회를 놓고 미국 예술계와 종교계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논쟁은 '영혼의 경계(A Threshold of Spirit)'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 성 존 대성당이 지난 1일 전시 작품 중의 한 점을 강제 철거한 것에서 비롯됐다.

철거된 작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 알린 쉬렛(Arlene Shechet)의 '무제'. 알린의 작품은 청동으로 만든 가느다란 줄을 엮어 석탑의 기단을 닮은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찰 모양의 건물을 세우고, 다시 범어를 연상시키는 문양을 수놓은 모양이다.

이번 논쟁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획전에 앞서 알린의 작품을 처음 본 성 존 대성당은 "다른 종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알린 스스로 작품을 수정해 다시 출품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알린은 "성 존 대성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당초 계획대로 대성당 1층 중앙 로비에 전시돼야 한다"며 전시를 강행했고, 결국 성 존 대성당이 1일 작품을 강제 철거시킨 것이다.



◇ 알린 쉬렛의 연작 '부처님'

대성당 "기독교인 명예 훼손" 미술인 "예술인 상상력 제동"

성 존 대성당은 작품 철거에 앞서 "성 존 대성당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다. 세계의식이 진행되는 이 곳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영광을 찾고 있다. 따라서 알린의 작품은 전시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번 기획전에 작품을 출품한 11명의 다른 예술가들은 "알린의 작품 성향이 불교미술에 가깝다는 것은 대성당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1명의 작가 중에는 도날드 맥피트(화가, 안드레 시라노(사진작가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국 미술비평계는 "종이나 청동을 재료로 연출한 조형물의 형태. 또 그것을 놓는 방법 등에서 불교미술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해 왔다. 2년 전부터 알린에 내놓고 있는 '부처'나 '기도' 등의 연작에서는 이 같은 평가를 실감할 수 있다.

성 존 대성당의 '영혼의 경계' 전(展)을 총괄한 큐레이터 피터 네기는 "성당은 매우 민감한 장소이지만 예술가의 상상력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알린의 작품을 포함해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성당의 상징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존 대성당은 1892년 뉴욕 맨해튼에 세워진 첼레코 계통의 유서 깊은 대성당으로, 종교예술 관련 학술대회와 전시회의 전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26일까지 계속되며, 뉴욕타임스는 알린의 작품 전시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출신식 (2개월 50만원), 출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구중구루 (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 (2개월 50만원), 유허원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근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을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성분미생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내 각종 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였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호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출신식(松仙食)」, 「출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